

제6호 태풍 '카눈' 복상에 따라 항공기 결항, 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입니다.

- 태풍 진로, 강도 등에 따라 공항별 항공기 운항계획 조정, 항공로 우회조치
- 의사결정 협의체(국토부·국방부·항공기상청·공항공사·항공사) 논의를 통해
최적 안전 확보 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복상에 따라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의 조정, 운항경로 우회 등 안전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.

□ 8월 9일(수) 13시를 기준으로 태풍(카눈)의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8월 9일(수)의 운항계획 1,895편 중 179편이 취소되고, 8월 10일(목)은 전체 계획 1,772편 중 62편의 취소계획이 접수되고 있으며, 취소편의 숫자는 태풍 예상 경로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.

* (주요공항 결항) 제주 65편, 김해 24편, 김포 58, 무안 3편, 광주 8, 여수 3편 등

□ 특히,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태풍 복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8일(화) 국방부, 항공기상청,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「의사결정 협의체」(CDM;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meeting) 회의를 통해 항공편 운항 여부, 우회항공로 사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태풍이 동남아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서해상 항공로로 우회 또는 결항 조치할 예정이다. 다만, 우회 시 기존 경로보다 비행시간이 15분 가량 늘어날 수 있어, 태풍의 경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서해상 단축항공로의 사용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미주·일본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도 동해상(울릉도 인근) 항공로 등으로 우회 또는 결항 조치하는 등 최적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항공기 결항 등 변경되는 운항정보는 항공사에서 예약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며,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.

○ 현재까지 확정된 운항계획 취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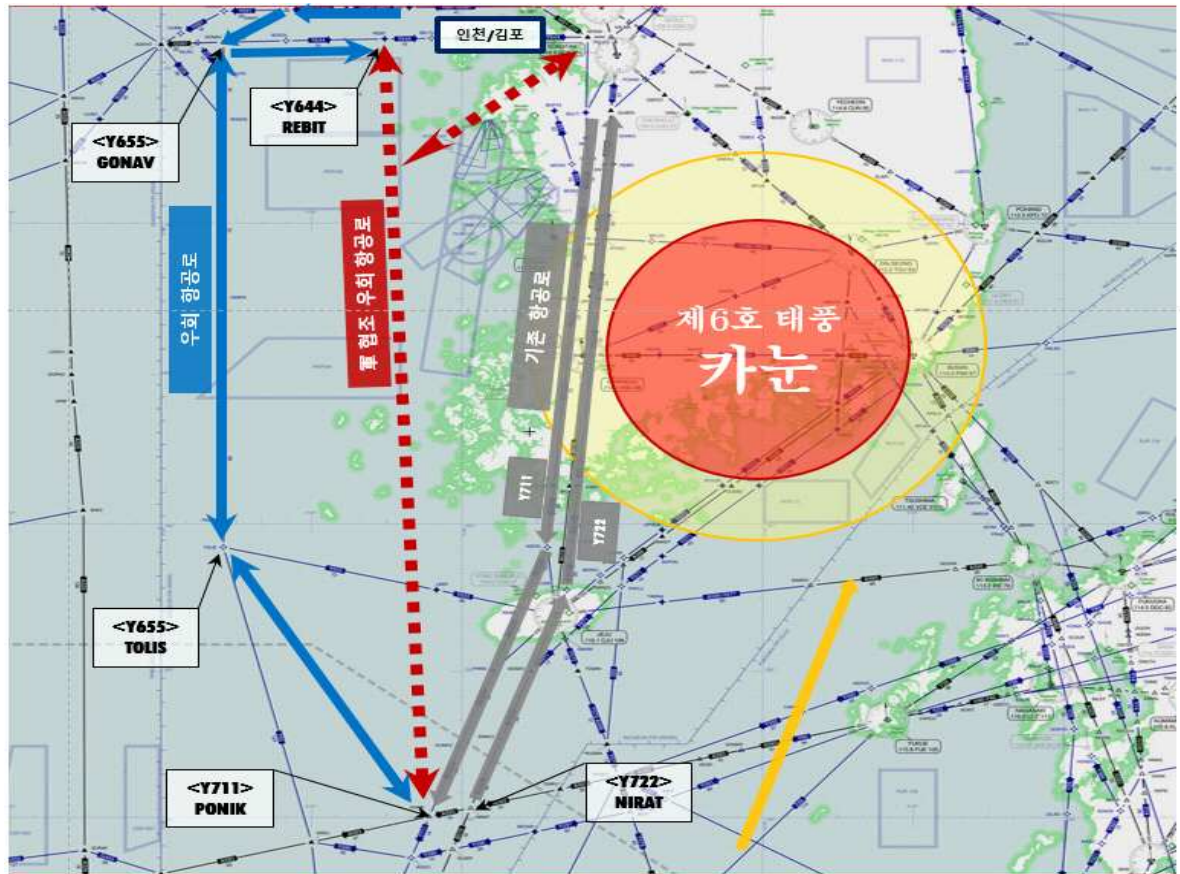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 (총괄)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동철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배 (044-201-4254)
		담당자	주무관	이재석 (044-201-4247)
담당 부서 (국제선 운항계획)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신익승 (044-201-4211)
		담당자	주무관	차시현 (044-201-4210)
담당 부서 (국내선 운항계획)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최진호 (044-201-4224)
		담당자	주무관	이금주 (044-201-4222)
담당 부서 (항로 우회)	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	책임자	과 장	박주환 (053-668-04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진종 (053-668-0491)



참고

제6호 태풍(카눈) 북상에 따른 국제선 우회 항공로 운영계획

동남아 노선



일본 미주 노선

